

북스

Books

20세기 포토 세계사
2차분 3~5권 출간



300여장의 사진으로 한 나라의 20세기를 조명한 '20세기 포토 세계사' 2차분 3~5권 세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앞서 출간된 1, 2권은 '중국의 세기'와 '영국의 세기', 3권 '러시아의 세기'는 제정 러시아 시기를 거쳐 1, 2차 세계대전, 1917년 사회주의 혁명 등을 겪었던 러시아 민중의 고단한 삶이 솔솔치니, 스탈린 등 유명인들의 얼굴과 교차한다.

4권 '독일의 세기'는 히틀러 탄생 이전 독일의 모습과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에 퍼뜨린 전체주의, 2차대전 후 분단을 겪고 다시 통독이 이르는 독일 현대사가 흑백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슬픈 민족의 서사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5권 '아일랜드의 세기'에는 정치·종교·군사 투쟁을 거듭했던 아일랜드인의 삶과 아름다운 풍경이 실려있다.

〈북폴리오·각 권 1만원〉

삶과 도박, 그 위태로운 불확정성



슬롯 신경진 지음



1억원이라는 과격적인 고료로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문학상의 3회 당선작 '슬롯'이 출간됐다. 최고 수준의 고료를 내걸고 있다는 점 외에 이전 당선작인 김벌아의 '미실'과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불러왔다는 점도 세계문학상의 새 당선작에 대한 기대를 더했다.

예상 가능하듯 제목의 '슬롯'은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에서 따온 것이다. 저자 신경진(38·사진)씨

경쟁의 바다서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아릿한 슬픔

는 카지노가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을 축소해 보여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소설의 배경으로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설은 "이 이야기는 도박과 여자에 관한 것이다"로 시작한다.

도박과 여자, 책 표지의 빨간 색채를 분명 자극적인 주제다. 그렇지만 소설은 최소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식으로 흐르진 않는다. 카지노의 기계를 상대로 씨름하다 결국 크게 이기고 마는 화끈한 무용담이나 그 과정에서 만난 여자들과의 연애담을 생각했다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어느 날, 미혼인 주인공에게 옛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주인공의 대화 선배와 결혼

했던 수진은 "원치않은 돈 10억원을 쓰기 위해 같이 카지노에 가자"고 제안한다. 황당했지만, 주인공은 수진이 이혼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동의하고 만다. 처음 가보는 카지노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주인공은 관련 서적을 탐독해 기본 지식을 쌓는다.

강원도의 한 카지노, 여러가지로 유쾌하지 못한 여행이 될 것이란 주인공의 느낌은 카지노의 첫인상에서부터 틀리지 않았다. "지방 도시의 낡은 대합실"에 가까운 그곳은 "누군가 바다에 침을 뱉는 해도 전혀 여색하지 않을 광경"이었다. 직원들의 반듯함은 카지노 안의 제멋대로 흐트러진 '도박 중독자'들과 교차한다.

저자가 의도한 '미래의 불확정성'은 확률과 우연이 지배하는 카지노의 특성과 맞닿아있다. 카지노의 불확정성은 다시 현대인의 위태로운 삶과 부조리한 사회의 이중성으로 조우한다. 결국 도박은 또 다른 일상 세계일 뿐이며, 도박을 통해서도 인생의 불확정성이나 지루한 반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대할 때 주인공에게 그토록 낯설었던 카지노는 며칠 후 오히려 '편안한 장소'가 돼 있었다. 주인공은 "슬롯머신의 휠이 돌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태연하게 게임을 했다."

심사를 맡은 소설가 박병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인의 내면을 차분히 그려냈다"며 "정체성의 상실로 가파른 자본주의적 경쟁의 바다에서 부유하는 존재의 아릿한 슬픔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소설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카드 카운팅', '빅 넘버 전략', '달려 시그니처' 등 도박에 관한 전문 용어와 관련 서적을 인용한 도박 이야기가 등장해 광범한 긴장을 앞다시기고 소설의 디테일을 살려준다.

〈문이당·9천800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의 지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나

공부의 발견 정순우 지음



한국의 '교육열풍'에 대해서는 항상 상반된 시각이 엇갈린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 다른 한편으로 입시지옥, 망국적인 과외 열풍을 만들어낸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으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공부는 때론 고통이고 상처일지도 모른다. 공부를 강요하는 학부모들도 '이렇게까지 혹사시켜야 하는가'라는 회의의 표정을 짓는 게 현실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인 정순우 씨는 '공부의 발견'에서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들의 공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부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의 대안을 찾는다.

책에 등장하는 학자들은 서경덕, 이항, 조식, 허균,

안경복, 정약용이다. 이들 역시 지금처럼 공부를 발판으로 관직에 나가기도 했지만 천박한 출세주의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정작 조선 학자들이 추구한 공부의 본질은 사물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곽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이들이 공통으로 고민한 문제는 개인의 참된 삶이었고 실제 삶을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였다.

이항은 공부를 통해 마음속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자연과 인간세계의 끊임 없는 조화를 추구했다. 이항이 평생 관심을 가진 것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도(道)와 연결할 수 있는 가였다.

조식의 공부는 배움을 실천하는 학행일치(學行一致)였다. 그의 문하에서 과재우, 정인홍 등 기라성 같은 입란 의병이 배출된 것도 그가 추구한 공부와 무관하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이론적인 앎과 실천적인 익힘이 동시에 이뤄져야 참된 앎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학자다. 아동들의 문자학습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고, 가치명제와 사실명제를 명백히 구별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저자는 "조선의 지성들은 지금처럼 건조한 지식의 창고를 더듬는 지식 세공업자들이 아니라, 덕성과 지혜의 발을 풍요롭게 일궈낸 참다운 스승이었다"고 말한다.

〈현암사·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를 심는 사람=프랑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와 녹색 운동가 니콜라 윌로의 대담. 이들은 자연과 개발, 현대성과 진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지금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때라고 강조한다. 〈조화로운 삶·9천800원〉

▲한국철학 스케치(전 2권)=한국 철학은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몸담아 온 자연 조건과 사회 상황에서의 경험들을 추상화·체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동·서양 철학에 비해 관심을 받아왔다.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이 한국 철학을 이야기로 풀었다. 〈폴리·각 권 1만800원〉



▲당신도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자신을 돌본 할머니가 죽자 눈물을 글썽거리던 소, 조련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몸무게 50kg이 줄어 버린 돌고래 등 동물과 인간의 교감은 어떻게 설명될까.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동물을 깨닫게 한다. 〈산타·1만원〉



▲몽타주=현대인의 정신적 질환 '자살병'이 가상의 도시에 전염되는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장편소설 '페스트'의 작가 최수철씨가 6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지난 9년 동안 각종 계간지에 발표했던 작품 중 엄선해 9편을 실었다. 〈문학과지성사·1만2천원〉

▲도시 풍수=풍수학의 권위자 최창조씨가 땅과 도시에 관한 에세이를 출간했다. 30년을 풍수에 전념했던 저자가 '풍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전통이나 과거에 얽매었던 풍수를 떠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풍수, 즉 '도시 풍수'를 모색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핀미동·1만5천원〉



▲사형수의 눈물 따라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사형수와 그의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며 40년을 살아온 삼중 스님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아 쓴 에세이. 저자가 재소자 교화와 사형수 구명운동을 하며 만난 어머니들의 따뜻한 이야기. 〈소담출판사·9천원〉



▲한일 교류의 역사=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 역사교육연구회가 지난 10년 동안 공동 작업 끝에 고등학생 대상의 역사교과서를 펴냈다. 순수 민간 교수 및 교사 40여 명이 참가, 토론과 합의를 통한 과정을 통해 펴낸 책. 〈해안·1만8천원〉

▲견습의사=전직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테스 케리첸의 의학 스릴러 소설. 인턴 의사 출신의 살인마와 여형사의 활약 등을 그린 '외과의사'의 후속편 성격을 띤다. 이번엔 '네크로필리아'(시체 성교 애호증)를 즐기는 제2의 범인을 등장시켜 더 강력한 의학 스릴러의 면모를 보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1천원〉



▲잃어버린 시간 1938~1944='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자료는 그 업적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독일 음악학자 이경분 씨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1938년에서 1944년 사이의 안익태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 그의 삶을 복원하고, 식민 시기 음악사의 시공간을 복원했다. 〈휴머니스트·1만3천원〉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 606-7000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정부위탁훈련(1년)
실업자훈련(6개월)
상무강령하운전전문학원

어머님과 함께하는 SASA(세이비)
SASA(세이비)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SASA(세이비)
어머님과 함께하는 SASA(세이비)
어머님과 함께하는 SASA(세이비)